

지역 메아리

산림분야 예비경영체 발굴·육성

완주군, 산림청 일자리발전소운영 시범사업 선정... 5년간 단계별 성장 지원

김제시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 교육

김제시는 4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정부양곡보관관리고수 및 지역농협 정부양곡관리관리자 54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양곡의 안정적인 관리와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제사무소의 협조로 진행됐다.

보관시설 장비의 설치기준과 양곡안전보관요령, 해충의 방제시기 및 방법, 훈증소독약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으로 쌀 품질저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고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화재예방 주의 당부

김제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농장의 노후 된 전기시설 사용으로 인한 축사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농장의 고다한 전기 사용과 부주의, 비위생적인 농장 운영과 초과 전기 사용 등이 있으며 특히, 보온을 위해 축사를 밀폐하는 행위는 축사 내 습도를 높여 누전이나 합선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 전기용량이 큰 전기기계·기구 동시 사용 금지, 축사 내 배선 및 환풍기, 분전함 내 먼지와 거미줄 제거, 축사 주변 가연성 물질 적재 금지, 소화기 비치 및 점검 등을 해야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청 태권도팀 메달 획득

김제시청 태권도팀(단장 구명석)이 최근 전남 광양에서 개최된 제12회 실업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8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은1, 동4개를 획득했다.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고 광양시, 의회, 체육회, 태권도협회, 조마코리아가 후원한 이번대회는 전국 25개 실업팀 선수 200여명이 출전하여 자웅을 겨뤘다.

여자부에 출전한 김제시청은 62kg급에 안해인 선수가 서울시청, 청주시청, 영천시청 선수를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였으나 가스공사 서지은 선수에게 6대 6 치열한 접전 끝에 끝판포인트에서 패해 아쉽게도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74kg급 조미희, 53kg급 박영지, 73kg급 예슬, 73kg급 이수민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산림청 일자리발전소운영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에 특화된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산림분야 예비경영체를 발굴·육성한다.

지역 내 잠재된 다양한 산림자원을 소득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경영체를 발굴해 최장 5년간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산림분야 중간지원조직 활동인력인 '그루매니저'를 완주군을 비롯해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일괄 선발한다.

모집공고는 산림청·완주군·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일까지이며, 서류와 발표 면접평가를 통해 오는 23일 최종 선정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매니저로 선정되면 직무에 대한 교육이수와 더불어 산림비즈니스를 수행할 예비경영체 발굴, 사업실행 역량강화 워크숍, 전문가 멘토링, 장업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등을 연중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의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분야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비경영체의 성장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완주군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 내 산림과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당찬 포부와 실행력을 지닌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완주군에서는 '그루매니저'와 함께 산림바이오 매스 활용 등 임업분야 부가가치 창출 및 마을단위 산림소득사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모악산 축제 준비 '구슬땀'

6일부터 8일까지

김제시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모악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축제 개최시기부터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상춘객 맞이 축제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자연이 그려낸 어머니의 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기존의 벚꽃 축제로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모악산 고요 콘텐

츠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문화관광 축제로의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중 모악산의 특징을 가장 반영하고 있는 '명산 모악산 마실길 걷기 대회'는 참가자들이 특설무대에서 금산사까지 코스를 거닐며 주변 경관도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또한 코스 중간에 인공폭포를 가동하고 통기타 음악회를 연계하여 등산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고, 반환점에서는 마을 주민이 기증한 600여 개의 오디즙을 제공하여 행사의 의미

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축제 개최시마다 오디즙을 선뜻 기증하고 있는 운종장 이장(금산면 청도리 백운마을)은 모악산 축제와 금산면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러한 선행을 펼치고 있어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엔 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행사는 지난 해 시 발생으로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4개 분야 38개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과 음식·숙박·주차 등 환대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 모악산을 전국 최고의 명산임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준비 '착착'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주민참여 부스운영자 신청 완료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더욱 맛있고 즐거운 축제로 찾아온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되는 제8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선 노점상 없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한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지난날 23일 음식과 문화체험 등 주민참여 부스운영자 80여팀이 신청을 완료해 서면심사 후 최종 선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음식컨설팅을 통해 13개 읍면의 특색을 살린 로컬푸드 음식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올해부터는 와일드·향수

마당 음식체험 콘텐츠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아카데미 운영이 본격 추진된다.

이명기 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장은 "더 멋진 와일드푸드축제가 되기 위해 주민교육과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8회차를 맞이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지역사회의 총출한 네트워크 장으로 꽃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천렵과 화덕체험, 추억과 야생을 표방한 건강한 축제로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 높은 4년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정종윤 전 안호영 국회의원 보좌관 주군의회선거 나선거구 군의원 출마



정종윤 전 안호영 보좌관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완주군의회선거 나선거구(구이·상관·소양) 군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강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관광경영 사업가, 대학교 겸임교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경력과 인맥을 쌓았다"며 "신선한 아이디어와 역동적 추진력으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군의원이 되겠다"며 출마에 변을 밝혔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구이, 상관, 소양은 우수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이를 지역활성화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계를 직접 방문하며 넓은 견문과 풍부한

인맥, 보좌관으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하겠다"고 포부를 강조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유망형 축제와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6차 산업과 로컬푸드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꼽았다.

또 "로컬에듀를 통한 인재양성 지원,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복지강좌"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종윤 예비후보는 구이중, 전주한일고, 전북대, 배재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동명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완주 군정인수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후보 완주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완주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완주군 체육회이사, 법무부 법사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족은 부인과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 경찰서, 치매노인 실종예방 업무협약 체결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지난 3일 김제시 보건소와 경찰서 2층 우수

실에서 치매노인 실종예방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추진하고, 치매노인 발생시 신속하게 발견하여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협약내용으로는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등 사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상습실종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 △ 실종 치매노인 발생시 신속 발견을 위해 정보공유 및 연락체계 유지 등에 관한 것이며 이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의해 보호자의 접근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만 실시하던 사전지문등록 서비스를 치매안심센터 방문한 치매노인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치매노인 방문시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연스럽게 지

문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치매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훈기 김제경찰서장은 "현재 김제시 인구의 29%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김제시 보건소와 협업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실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치매노인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